


(사)탁틴내일

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 | | | |
|---|--------------|--------------------------|--|
|  | 보도자료 |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사단법인 탁틴내일 | |
| | | 담당부서 | 청소년활동팀 |
| | | | 홈페이지 www.tacteen.net Tel. 338-7480 Fax. 3141-9339 |
| 배 포 일 | 2014년 7월 16일 | 상임대표 | 이 영 희 (010-2684-6988) |
| 매 수 | 총 4매 | 담 당 자 | 정 희 진 (010-4104-7786) |

120-83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7안길 18(창천동 114-9)

“ 낮 뜨거운 인터넷 광고 STOP!!! ”

인터넷상의 선정적 유해광고들을 없애주세요!!

-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 발대식-

2014년 7월 19일 (토) 14:30분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는 인터넷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한다.

-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에서 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범행 전에 음란물을 보았다는 점에서도 범죄를 유발 혹은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음란물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 과거 성인 전용 사이트를 통해 접하던 음란물이 P2P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청소년이 쉽게 음란물을 접해 더욱 심각하다.
- 인터넷신문에 있는 광고는 음란물은 아니지만 선정성이 과해서 유해

하며, 음란물은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선정적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신문 기사를 읽기 위한 좋은 의도로 인터넷을 접속했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으로 관심을 끌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 그동안 (사)탁틴내일, GSGT(아름다운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모임)은 2번의 청원운동을 통해 법적 규제 제도를 마련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 2조 2호의 사항 ‘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1년 사이에 선정적 광고가 2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의 음란성 광고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한마음으로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 협력단체를 만들어, 인터넷 선정적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이를 알리는 발대식 및 거리캠페인을 진행한다.
-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는 (사)탁틴내일, GSGT(아름다운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모임), (사)어린이안전학교, 아이건강국민연대, (사)선풍달기운동본부,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강남녹색어머니회 등 7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였다. 이 단체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생활안전이 참으로 중요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안전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과 함께 하루 내내 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숙제를 하려다가, 아니면 뉴스를 살펴보다가 그만, 눈에 띄는 야한 광고를 클릭하면서 점점 음란 동영상 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급률이 높아져 더 어린 나이에, 더 쉽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뉴스 홈페이지 등에 대한 선정적인 광고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보기에다 민망할 정도로 그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정보의 바다가 ‘선정적 음란광고의 바다’가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심각함을 느낀 어느 ‘아빠’는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자는 서명운동 홈페이지를 재능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언론이나 광고주 등이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 및 교사 청소년단체들은 아이들에게 유해한 인터넷 광고가 없는 깨끗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해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뿐 아니라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17

요구합니다

| 요구합니다 | 단체 | 글내용 |
|---------|----------------------------------|---|
| 언론사에게 | 아이건강 국민연대 | 아이들에게 보고 싶지 않은 광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에게 유해한 기사는 실지 말아주세요 배우고싶은 언론사 보고싶은 언론으로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기사 검색하게 해주세요 |
| 대통령에게 | GSGT |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 여 주세요 하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즐길 수 있는 깨끗 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둘. 온라인 뉴스 매체의 음란성 광고로 인한 정신적 폭력 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셋. 범람하고 있는 유해성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광고심의기준과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을 강화시 켜주세요 |
| 광고주에게 | 탁틴내일 | 광고주에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어른들의 돈벌이 욕심과 비리로 아이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았 습니다. 정서적 정신적 안전도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자라야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선정적인 배너광고를 의뢰하지 말아주세요. 과장된 다이어트 광고 를 하지 말아주세요. 격이 있는 광고를 만들어 주세요. 인터넷이 민망스런 광고의 바다가 아니라 정보의 바다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
| 부모님에게 | 녹색어머니회 | |
| 포털사이트에게 | 어린이 안전학교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 포털사이트는 모든 연령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종 정 보의 통로입니다. 그만큼 공공성이 요구되는 장소요, 안 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는 광고주들의 요구에 앞서 공공성과, 그 영향 력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 즉 클린 인터넷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포털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들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들에 대한 경고와 안 전장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